

## KTAPPI 인터뷰

# 제지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 2025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제지용 첨가 케미컬의 동향과 신기술 발표자와 함께

펄프종이기술은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 마련된 “제지용 첨가 케미컬의 동향과 신기술”이란 주제의 특별 세션에 연사로 참가하여 많은 제지인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준 네 분의 발표자를 만났다. 이들은 모두 오랜 동안 제지산업을 돕는 조력자로, 또 어려운 난관을 함께 극복해 온 동반자로 큰 역할을 해왔다. 제지산업과 제지용 약품업체와의 동반은 단순한 약품 공급을 넘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지와 같다. 오랜 동안 제지산업과 동고동락한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펄프종이기술:** 이번 학회에서 웬엔드분야 특별세션에서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담당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안녕하세요. 솔레니스 코리아 제지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익동입니다. 저는 1990년 솔레니스의 전신인 허큘레스 코리아 기술영업부에 입사하여 제지용 기능성

화학제품의 기술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사 초기에 미국 본사 연구소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주요 제품군이었던 중성 및 산성 사이즈제와 습윤 지력증강제를 중심으로 국내 제지업체를 방문하여 기술지원과 영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솔레니스 코리아 제지사업부 영업 책임을 맡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일본 제지사업부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과 고객 만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microparticle 폴리머 보류 시스템, PVAm 지력증강제, 산화형 바이오사이드(oxidizing type biocide), on-site GPAM, 피치·스티키 컨트롤제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협업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이루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 적용 방식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경:** 네, 저는 삼보과학의 김원경입니다. 제지업계와 인연을 맺은 이후, 웨텐드 측정장비와 코팅 레올로지 측정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지 관련 실험기기를 제작·판매하며 현장의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장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 및 연구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적용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펄프·종이공학회를 통해 제지업계와 학계의 여러 전문가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필:** 저는 제지용 약품을 생산·공급하는 송강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생산과 R&D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대기업과는 또 다른 의미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행해야 할 역할과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회사 운영의 전 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챙겨야 합니다. 단순한 의사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 현장부터 연구개발, 설비 관리, 그리고 작업 환경의 유지까지 모든 영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회사의 경쟁력은 ‘기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연구개발의 효율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장 내외부의 청소와 정리정돈, 작업 환경 관리 역시 중요한 경영 활동의 하나로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공장은 거대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작은 요소들이 질서 있게 맞춰져야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 R&D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며, 한 회사의 전반적인 공정과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과 기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조직 문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지 관련 산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품과 기술의 생애주기가 빠르게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 기간은 길지 않은 반면, 그것이 탄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지산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농사’와도 같은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할 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천과 연구개발을 통해 제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ussi Matula:** 저는 2021년부터 Wetend Technologies Ltd.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으며,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현재 영업과 고객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업 전략 수립과 제품 개발을 총괄하며, 고객 요구에 기반한 솔루션 제공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필프종이기술:** 웨트엔드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게 된 동기는?

**송재필:** 저는 제지용 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제지회사의 증성초지 전환을 위한 현장 실험에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절(紙切) 문제에 직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공정 안정화를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제지공정에서 지절 문제가 생산성과 품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지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찾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모든 의사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무게와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변화가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사업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초심과, 작은 성과에도 큰 보람을 느끼던 그때의 마음가짐은 지금도 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경험에서 출발한 실질적인 기술과 해결책을 통해 제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익동:**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허큘리스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제지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근무 초기부터 제지산업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흥미가 있다고 느꼈었는데 지금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사는 웨트엔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의 효율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웨트엔드 관련 기술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제지산업과 허심탄회하게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웨트엔드 약품 적용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솔레니스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협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저도 발전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웨트엔드 효율을 높이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품질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간의 win-win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지업체들 역시 지속적인 웨트엔드 개선을 위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사가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on-site GPAM은 웨트엔드 개선 효과가 우수하여 주원료 비용 절감과 탈수성 개선에 기여함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생산성 및 품질 개선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웨트엔드 최적화를 위한 약품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한 공정 분석과 적용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원경:** 저는 particle size analyzer 등 입도 분석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해 오던 중, zeta potential analyzer와 연관된 PCD(Particle Charge Detector)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지 웨트엔드 공정에서는 제타전위 값보다 cation demand (양이온 요구량)의 관리가 실제 공정 제어에 더욱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PCD 장비의 국내 시장 도입을 추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지산업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정 내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전하를 평가하기 위해 제타전위 측정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정 용수의 수질이 점차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입자 자체의 전하 특성뿐 아니라 용수 전체의 전하 균형과 오염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PCD의 활용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타전위 분석과 PCD 측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웬엔드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관리하는 개념이 현장에 정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보과학은 이러한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제지업계의 웬엔드 관리와 공정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Matula:** Wetend Technologies는 가족 경영 회사입니다. 2001년 아버지께서 회사를 설립하셨으며, 저는 창립 초기부터 Wetend에서 함께 일해 왔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적용·개발되는 매우 역동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력은 저희와 같은 소규모 기업에게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며 회사의 기술과 서비스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경험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을 이어가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펠프종이기술:**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제였는지요? 아울러 큰 보람을 느낀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김익동:**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 과정을 하나씩 극복하고 나니 회사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

었고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본사로부터 비용 절감 목표가 내려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3명의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한 뒤, 인원 감축 대신 직급별로 일정 비율의 급여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인재를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한 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 1년 후 경영 상황이 회복되면서 삭감되었던 급여도 모두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와 연대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으며, 저를 믿고 함께해 준 솔레니스 팀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원경:** 현재는 PCD가 범용 장비로 자리 잡을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초기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PCD를 소개하기 위해 여러 제지 연구소를 방문하여 설명을 진행했으나, 실무자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연구소에 서 큰 관심을 보여 적극적으로 기술 설명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보니 PCD와 유사한 형태의 장비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측정 원리와 성능이 달라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화학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데모 장비를 직접 설치하고, 연구소 담당자가 샘플을 측정하도록 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PCD의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이후 웨트엔드 공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기술이든 새로운 개념이 담겨 있을수록 기존의 인식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과 설득, 그리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재필:** 김익동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 고객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업계 전반에도 그 여파가 미쳤고, 경영 환경 역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현장을 지켜보니, 최근 저희 주요 거래처인 제지회사들의 근무환경과 일상적인 운영이 한층 쾌적해지고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혹은 어려움 중 하나는 중대재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한 대책 이전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본적인 지혜와 습관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정리정돈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이사이지만 회사의 청결과 작업 환경을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로 생각할 뿐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닥 청소는 물론 화장실, 창틀, 난간 등 구석구석의 먼지를 제거하고, 공장 내외부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경우가 많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직원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결국 조직의 문화와 경쟁력을 만든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본을 지키는 일에 꾸준히 힘쓰고자 합니다.

**Matula:**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제한된 자원으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CEO로서 여러 분야에 동시에 기여해야 하다 보니 시간적인 제약이 크고, 때로는 고객의 요구에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반면, 이 직책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협력과 공동 개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펠프종이기술:** 향후 귀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웨트엔드 기술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요?

**송재필:** 제지산업의 구성요소 가운데 기계나 설비를 제외한 원료, 충전제, 용수, 그리고 각종 부원료 약품 분야로의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지용 약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취급 품목의 다양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사업 영역을 보다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국내 제지용 약품업체 역시 해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송강의 기술력과 현장 중심의 노하우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Matula:** Wetend는 제지용 웨트엔드 약품의 혼합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최종 사용자를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 에너지, 원자재의 절약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Wetend가 지켜나갈 핵심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고효율의 친환경 제품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제지업계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김익동:** 제지 기술과 시장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며, 솔레니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제품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사와 협업하여, 기존 PE 라미네이팅 식품 포장지를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고 퇴비화까지 가능한 친환경 배리어 제품으로 성공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5년 3월부터 상용화를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솔레니스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탄소 저감은 물론, 에너지와 용수 사용량 절감, 자원 순환을 포함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지공장의 자동화된 설비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웹엔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AI 기반 솔루션인 OPTIX를 활용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사용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고객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Win-Win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필:** 현업에서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체크하여 근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과 품질로 앞서가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원경:** WEPS(Wet End Processor Simulator)는 실험실 환경에서 실제 현장의 웹엔드 공정을 모사(simulation)할 수 있는 장비로, 다양한 공정 조건 변화를 사전에 검토하고 최적의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전 공정 변화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웹엔드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Matula:** Wetend Technologies는 제지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원래 물 절약을 목표로 하는 고객 프로젝트 과정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제지 산업과의 협력은 항상 Wetend Technologies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 “새로운 기술을 서로 나누고, 더욱 새로운 기술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펄프종이기술:** 제지업계와 관련산업계의 유대강화를 위해 펄프종이공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그동안 학회 회원으로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제지공장의 자동화 단계에서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을 예측·최적화하는 AI 기술인 OPTIX를 소개하는 발표를 통해 조금이나마 회원으로서 역할을 한 것 같아 다행

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지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른바 3D 업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약품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학교에서 양성된 제지 전공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비전공 인력을 채용해 별도의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지 전공 학생들이 산업 전반과 관련 업체들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로를 모색해 주기를 바라며, 산학 간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필:** 제지 관련 기술개발은 최소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제지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와 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학회가 일익을 담당해 주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웨트엔드 세션과 같은 기회를 통해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Matula:** 저희는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신기술과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공유는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넓히고, 신제품 개발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펠프종이기술:**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지업계를 위해 더욱 큰 역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



[참석자] 좌로부터 유정용 학회부회장, 김원경 삼보화학사장, 이진호 케미라이사, 송재필 송강산업사장, 김진두 회장, 김익동 슬레니스 대표, Matula Wetend CEO, 권태연 발멧 상무, 이학래 편집위원장